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1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

설교제목 : “주의 만찬”

하나님께서 교회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말씀, 둘째가 기도, 셋째가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교회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는 강조되는 반면 성찬은 일 년에 한 두번 거행하는 기독교적 예식으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성찬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습니다. 톰 라이트는 성찬을 만지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주일 오후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식탁교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식탁교제를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식탁교제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식탁은 제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식사교제는 한 가족이요 한 몸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식탁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교제인 주의 만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애찬형식과 그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식사 형식으로 진행된 애찬은 그 당시 일종의 **구제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보통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을 대신 마련해서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주의 만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부유한 가정집을 정하여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주일 모임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을 대신 마련해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차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가난한 성도들은 **일용노동자들이나, 노예계급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랴부랴 주일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과를 마치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별도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일예배 참여한 부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도착할 때쯤에는 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20-21절)** 결국 성찬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서로 감정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겨, 분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성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격노하여 꾸짖습니다. 바울은 그럴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 편이 좋다고 책망합니다. 부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22절)** 이것은 **주의 만찬의 본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23-25절)**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기념하다’는 헬라어 동사 ‘아남네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작은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작은 잔을 나누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또한 성찬은 미래적 의미를 갖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성찬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26절) 이것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에 참여함은 우리 모두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성찬은 우리 삼광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고, 우리 삼광의 공동체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잘 살피서,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명합니다.(고전11:27-29)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와 삶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억은 더 나아가 성찬의 삶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기념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남네신’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회상하다는 뜻 외에 ‘일부를 드러서 전체를 드러낸 것 같이 여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삶이란 나의 작은 것을 나누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찬의 삶이란 나의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약한 자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를 드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결국 성찬의 삶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이러한 작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초대교회의 성찬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주의 만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성찬의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